

기혼여성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명 옥* 하 정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결혼적응과 관련성을 보이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들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혼여성 33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처방식과 결혼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처 방식 하위 차원의 영향력이 각각 통제되었을 때,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리개별화가 잘 될수록 결혼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이 클수록 결혼적응을 잘하는데, 특히 희망의 하위변인 중 주도사고가 결혼적응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적응에 대한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결혼적응에는 분리개별화, 희망의 순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결혼적응,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

† 교신저자 : 이명옥,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12번지
E-mail : woolee9106@hanmail.net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IMF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현재 OECD국가들 가운데 최 상위에 속하며 증가속도도 가장 빠르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남녀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붕괴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가족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부부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르는 채 자신들이 성장하면서 배운 삶의 방식이 정당하다고 믿거나,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다른 방식을 몰라서 고통을 재생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부부문제는 더 이상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결혼적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2004년 3월 10일에 발표된 “2003년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상담통계 개요”에서는 남녀 모두 혼인기간 11년 이상~21년 미만의 40대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진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혼상담비율은 여성(85.9%)이 남성(14.1%)보다 6배 이상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2004).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더 낮다는 결과나(김미정, 2001)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라 남편의 결혼적응도는 증가하지만, 아내의 결혼적응도는 감소한다(Adams, 1980)는 연구결과와 연결하여 볼 때 결혼적응에 대한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이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3년 전국 가족 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여성부 정책 1 담당관실)의 자료는 부부간 갈등이 있을 때에 부부 둘 다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42.7%인 반면에, 부부 둘 다 이혼을 찬성하는 경우가 15.3%로 나타나, 비록 부부 간에 갈등을 겪는다 해도 이혼을 하기 보다는 갈등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부부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기혼여성들의 결혼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은 가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뿐 아니라 자주 다루어지는 연구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panier & Filsinger, 1983; 이민식, 김중술, 1996). 1929년 미국의 Hamilton을 효시로 많은 연구자들(Benard, 1993; Burgess & Cottle, 1939; Burgess & Wallin, 1953)이 나름대로 결혼 적응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해왔다. 결혼적응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잘 적응하는 부부는 배우자가 서로 자주 상호작용하고 중요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거의 불일치가 없으며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 대화하며 또한 서로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불일치를 해결한다(Spanier, 1976). Spanier는 결혼적응이라는 개념은 질적으로 다른 ‘상태(state)’를 의미하는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부부관계라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응과 부적응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횡단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종단적으로는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결혼적응을 ‘안정되고 조화로운 가족생활을 위해서 부부 상호간의 끊임없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도 하였다(김양희, 박정운, 최유경, 2003).

결혼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무수히 많다. 지금까지 결혼적응과 관련되어 연구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자아분화, 자기개발,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 개인특성, 분리개별화 등등 다양하다(김명자, 1994; 전길량, 1988; 김현정, 1999; 모의희, 2002; 김소영, 2003; 최유경, 2002; 윤희정, 2004).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적 특성과 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의 행동적 특성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결혼적응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가족 내 병리현상은 오늘날 가족이 많은 스트레스 위기에 직면하여, 그로 인한 붕괴를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차승희, 1991). 결혼생활에서 많은 갈등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요인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가는 방법이다. 경제적 문제, 부부 갈등 등 가정 내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갈등국면을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윤희정, 2004). 즉, 현대의 부부중심가족이 가진 불안정성은 그들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김미숙, 1990). 따라서 결혼적응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과 대처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동적 특성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결혼갈등연구는 부부문제에만 국한시키기보다는 각 배우자들의 성장과정과 이들의 역동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송성자, 1990).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자신의 심리적,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맺고 있

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분리개별화의 수준과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중년이후의 여자에게 많은 화병이 가정문제, 자신의 문제(김중우, 1996), 개인의 성질(민성길, 1989)때문에 발생한다는 결과나 우울증이 관계불화와 관련되며 우울한 개인들의 50%이상이 부부문제를 보고한 것과 같이(Roy, 1987),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 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들의 결혼적응을 예측하고 향상시키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내적인 특성 변인으로서 ‘분리개별화’와 ‘희망’을 상정하여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리개별화와 결혼적응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한 선행연구가 있으며(윤희정, 2004; Haws, Wendy Amstutz, Mallinckrodt, & Brent, 1998), 최근 각종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되는 희망이란 개념 또한 결혼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이 결혼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혼적응을 위한 다양한 행동적, 개인내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행동특성인 대처방식이나 분리개별화와 같은 개인 내적 특성 등과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연구들은 있으나 행동적 특성과 개인 내적 특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은 드문 실정이다. 이를 통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인특성을 파악함은 물론 결혼적응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결혼적응

Folkman과 Lazarus(1980)는 대처방식에 대한 4가지 이론적 관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아 과정을 강조하는 심리적 관점(Psychological perspective), 인성특성의 결과(Personality perspective), 상황적 관점(Situation perspective)과 인지적, 상호작용론적 관점(Cognitive-Interaction perspective) 등이다. 인지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은 먼저 상황을 평가하고,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 근거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자원의 선택과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자원에는 인성, 방어기제와 같은 심리적 자원, 친구, 가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실제적인 대처방식이 결정되어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변경, 관리하거나 정서문제를 조정하게 된다. 이 관점은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 의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전제되며, 따라서 인성요인과 상황평가가 대처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대처란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외적 및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4). 즉, 대처란 개인이 자신의 고통이나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얻고자 스트레스를 다루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는 사회적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Parker & Asher, 1987) 이러한 대처방식은 생활의 경험을 통해 습득된 개인의 반응으로 나타나며,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는 대처방식의 평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Katz, Weiner, & Gallager, 1970). 이처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

처는 중요하며, 이러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과정이 스트레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McGrath, 1970).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발휘하는 행동이나 전략으로 스트레스를 제거, 예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유형은 학자별로 다양하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통제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는 위협적이라고 평가된 상황을 변경 또는 제거시키기 위해 환경이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문제중심의 대처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생긴 바람직하지 못한 느낌을 통제하기 위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뤄지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 중심의 대처방식을 취한다(Lazarus & Folkman, 1980).

이러한 대처방식과 결혼적응을 관련지어 볼 때, 개인의 대처방식은 그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지 자원들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Pearlin, 1978)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결혼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스트레스에 대한 단기적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스트레스의 장기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을 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경, 2002; 김양희, 박정윤, 최유경, 2003). 또한 갈등적인 대처방식(소리 지르기, 비난하기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적응도가 낮았으며, 우울해지거나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등의 내면적

자기비하를 많이 할수록 전체적인 결혼적응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차승희, 1991). 또한 회피·행동 표출적 대처방식, 감정적 대처방식, 외부도움 요청방식 등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이성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최규련, 1988). 이렇듯,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결혼적응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대처방식 그 자체와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며, 대처방식 이외의 변인들 즉, 개인 내적인 변인 및 개인의 행동특성인 대처방식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본 것은 드문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Folkman과 Lazarus(1980)의 척도를 사용하여 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리개별화와 결혼적응

정신분석학적 맥락에서 Mahler, Pine과 Bergman(1975)은 인간의 탄생을 생물학적 탄생과 심리적 탄생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분리개별화 과정으로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첫 번째 분리개별화 과정은 유아기 동안 일어나고 두 번째 분리개별화 과정은 청년기 동안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Blos(1979)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리개별화의 성공적인 수행은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Mahler와 그의 동료들은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해 '분리'와 '개별화'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그러나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는데, 분리는 어머니와의 공생적 융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칭하는

한편, 개별화는 아동 자신의 개별적 특성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Mahler, Pine, & Bergman, 1975, p.4). 이 두 과정들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각각 다른 과정의 성취를 촉진시킨다. 분리는 지각적으로 변별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인지적으로 통합(리비도적 대상 항상성)이 될 때 정점에 이르게 된다. 한편 개별화는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움직임, 언어 사용, 그리고 다른 활동들의 구체적인 성취에 의해 이루어진다(이영희 외 역, 2005). 그러나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이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는 능력보다 늦게 발달하는 경우처럼, 때때로 한 쪽 과정이 다른 쪽 과정보다 지체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이재훈 역, 1999).

말리에 의해 개발된 분리개별화 이론(Mahler, 1968; Mahler, Pine, & Bergman, 1975)에서는 분리개별화가 평생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며, Colarusso 또한 분리개별화가 평생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성인기의 각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Colarusso, 1997; Bar-Tur, Liora, Levy-Shiff, & Rachel,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분리개별화의 개념을 결혼적응과 관련지어 볼 때, 이들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독립연령이 서구에 비해 늦을 뿐 아니라,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유은희, 1991). 또한 남편의 부모로부터의 개별화는 결혼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내의 부모로부터의 개별화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Wendy Amstutz Haws & Brent Mallinckrodt,

1998). 분리개별화가 어려운 집단일수록 문제 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원가족 문제,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녀양육 갈등이 유의미하게 높다. 즉, 개별화의 어려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사소한 차이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의논을 회피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불일치를 나타내며, 원가족에서 해결 되지 않은 갈등이나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지각이 현재 부부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윤희정, 2004). 즉, 분리개별화는 본인의 결혼적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배우자의 결혼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희망은 자신을 위한 목표와 요구가 달성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태나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행위지향적인 긍정적인 기대로 특징지어지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한다(Herth, 1989). 희망은 높은 삶의 질과 관계가 있고 적응을 향상시킨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힘이다. 또한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하여 가치 있는 삶을 지속시켜준다(박호란, 1999; 김달숙, 1992; 태영숙, 1994). 또한 희망은 인간의 중요한 요구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다는 기본적인 신념이 중심인 사고이며 감정의 복합체인 인간이 존재함을 깨닫게 하며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한다(Lynch, 1965).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도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은 차이를 보인다

(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자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희망이며 이러한 희망은 처한 상황이나 개인이 소유한 힘, 그리고 나약함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경향을 발생시킨다(Breznitz, 1986). 즉, 목표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생길 경우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삶에는 난관이 있기 마련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장애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Snyder et al., 1998). 또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구하지 않게 된다. 희망은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서 생활을 참을 수 있고 의미있게 하는,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의 한 요소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방어를 강화시킨다(Mcgee, 1984).

희망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원은 행복하고 자하는 정상적인 목표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스트레스원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정상적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대안적인 경로를 찾아야 하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희망을 두 가지 인지적 메카니즘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로 구분된다. 한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갖게 되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융통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한 개인의 지각능력을 경로사고라 한다. 한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각능력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시키는 믿음이나 확인으로 정의되는

것이 주도사고이다(Snyder et al., 1998). 즉, 스트레스원에 직면했을 때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원을 다루는 전략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경로사고요인),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경향(주도사고요인)을 더 많이 보여주었다(Snyder, 1994, 2000; Snyder, Harris et al., 1991). 더 나아가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생겨날 이익을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았고(Affleck & Tennen, 1996; Tennen & Affleck, 1999),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피로움을 덜 느끼며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적응을 감소시키는 회피대처의 경향이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ls & Fletcher, 1985).

심리적 건강은 미래를 예견하는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심리적 건강의 수준을 예견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예견은 더 높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Snyder, Ilardi, Cheavens et al., 2000), 자신들의 희망적인 사고가 미래의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지각한다(Snyder, Sympson et al., 2000). 또한 희망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체적인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Obayuwana & Carter, 1982).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수 있듯이, 희망이 심리적인 적응, 적응적인 대처방식, 신체건강, 긍정적인 정서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1.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결혼

적응을 잘 할 것인가?

2. 분리개별화가 잘 될수록 결혼적응을 잘 할 것인가?

3. 희망이 높을수록 결혼적응을 잘 할 것인가?

4.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이 결혼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2006년 8월 2일부터 22일까지 충청북도 청주, 청원, 경상북도 대구, 김천, 구미, 경상남도 사천,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20~60세의 기혼여성에게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해서 362부의 자료를 수거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337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결혼 지속 년 수와 연령대별 분포는 이후 결과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스트레스대처방식척도

Folkman과 Lazarus(1980)가 개발한 것을 기초로 김정희(1987)가 요인 분석하여 선택, 개발한 척도로서 여기서는 김은정(1999)의 연구에 사용된 축소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나뉘어지고 적극적 대처방식의 개념을 대표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와 소극적 대처방식의 개념을 대표하는 소망 추구적 사고, 정서 중심적 대처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 문항으로 Likert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적극적 대처방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소극적 대처방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로 나타났다.

분리-개별화척도

분리개별화척도는 Green과 Millon(1986)이 제작한 분리-개별화척도를 장근영과 김인경(1993)이 번안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한 것을 박경순(1998)이 성인용으로 번안하여 56문항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을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개별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결속불안 7문항, 자기몰입 7문항, 분리불안 8문항, 건강한 분리 문항, 거부기대 9문항, 의존부정 11문항, 공생관계 7문항 및 친구와 결속 1문항의 8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건강한 분리, 의존부정, 자기몰입, 거부기대, 친구와 결속은 크게 가(假)독립 개별화 유형과 관련된 개별화 수준으로, 결속불안, 분리불안과 같은 일차적 불안과 관련된 유형은 공생관계수준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개별화 수준이 공생관계수준보다 발달 단계상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경순(1998)과 박부형(2000)의 연구에서는 총 점상관 $r \leq .20$ 인 22문항을 제외하고 34문항을 개별화수준과 공생관계수준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여 각각의 신뢰도를 .75에서 .85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도 34문항만 분석되었으며 개별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공생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희망척도

본 연구에서는 강이영(2002)의 번안문을 사

용하였다. 희망척도는 개인의 안정된 특성을 중심으로 희망을 측정하는 특성희망척도(Trait Hope Scale)와 개인의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희망을 측정하는 상태희망척도(State Hope Scale)로 크게 구분된다. 특성희망은 모두 12문항으로, 주도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구문항 4문항으로 구성된다. 상태 희망은 6문항으로 주도사고 3문항, 경로사고 3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8점 Likert형식으로 측정되며 허구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Snyder와 Harris등(1991)에 의하면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4$ 에서 .88로 보고되고 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3주 간격에서 Cronbach $\alpha = .85$, 10주 간격에서 .82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최동옥(2005)에서도 특성희망과 상태희망의 상관계수는 .89로 나타나 두 척도 간에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두 척도 구분 없이 총합을 전체 희망 수준으로 상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주도사고 문항과 경로사고 문항을 구분한 것 또한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희망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고, 주도사고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경로사고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결혼적응 척도

피험자들의 결혼생활 적응 및 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1976)가 개발한 (Dyadic Adjustment Scale)의 우리말 번역본인 '부부관계 적응척도'(DAS)를 사용했다(이민식, 김중술, 1995). 이 척도는 결혼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어왔다(정석희, 1992; 전길량, 1998; 권정혜, 채규만, 2000; 지혜정, 2002). Spanier(1976)는 이 검사를 만들면서 1)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문

제들을 결정하는 부부간의 의견일치도(Dyadic Consensus) 2) 관계에 대한 만족(Dyadic Satisfaction: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 부부가 어떤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집력(Dyadic Cohesion) 4) 애정표현과 성생활의 만족에 대한 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결혼적응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AS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결혼 적응도(Marital Adjustment)점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위 4개의 하위척도 각각의 점수 합을 모두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결혼적응 하위변인 각각의 신뢰도는 부부의견일치 Cronbach's $\alpha = .92$, 관계에 대한 만족 Cronbach's $\alpha = .81$, 부부응집력 Cronbach's $\alpha = .87$, 부부애정표현 Cronbach's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결과 분석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령대별로는 31-40세(34.4%), 41-50세(4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결혼기간은 11 ~20년이 131명(38.9%), 21~30년이 92명(27.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각 변인의 상관 계수

분리개별화,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 희망, 부부의견일치, 부부응집력, 관계에서의 만족, 부부애정표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된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개별화는 적극적 대처방식($r = -.23, p < .001$), 희망($r = -.20, p < .001$), 부부 의견일치($r = -.36, p < .001$), 부부 응집력($r = -.32, p < .001$), 관계에 대한 만족($r = -.43, p < .001$), 애정표현($r = -.34,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소극적 대처방식($r = .12,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적극적 대처방식은 소극적 대처방식($r = .41, p < .001$), 희망($r = .47, p < .001$), 부부 의견일치($r = .22, p < .001$), 부부 응집력($r = .17, p < .01$), 관계에 대한 만족($r = .13, p < .05$), 애정표현($r = .11,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소극적 대처는 부부 응집력($r = -.11,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희망은 부부 의견일치($r = .27, p < .001$), 부부 응집력($r = .34, p < .001$), 관계에 대한 만족($r = .27, p < .001$), 애정표현($r = .17,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부 의견일치는 부부 응집력($r = .60, p < .001$), 관계에 대한 만족($r = .53, p < .001$), 애정표현($r = .65, p < .001$)과 유의한

표 1. 연령대별 수와 결혼지속 년 수

연령대	21-30	31-40	41-50	51-60	60세 이상	계(%)	
계	26명 (7.71%)	116명 (34.42%)	140명 (41.54%)	47명 (13.94%)	8명 (0.23%)	337명 (100%)	
결혼기간	3년미만	3~5년	6~10년	11~20년	21~30년	31년이상	계(%)
계	21명 (6.2%)	12명 (3.6%)	55명 (16.3%)	131명 (38.9%)	92명 (27.3%)	25명 (7.4%)	337명 (100%)

표 2. 대처방식, 희망, 분리개별화, 결혼적응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계수(r)

	1	2	3	4	5	6	7
1. 분리개별화							
2. 적극대처	.23***						
3. 소극대처	-.12**	.41***					
4. 희망	.20***	.47***	.11				
5. 의견일치	.36***	.22***	-.07	.27***			
6. 부부응집	.32***	.17**	-.11*	.34***	.60***		
7. 관계만족	.43***	.13*	-.08	.27***	.53***	.55***	
8. 애정표현	.34***	.11*	-.07	.17**	.65***	.50***	.53***

* $p < .05$, ** $p < .01$, *** $p < .001$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부응집력은 관계에 대한 만족($r=.55, p < .001$), 애정표현($r=.50,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관계에 대한 만족은 애정표현($r=.53,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이 모두 결혼적응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결혼 적응과의 관계

결혼적응에는 부부의견일치, 관계에 대한 만족, 부부응집력, 애정표현의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결혼적응 하위변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 보듯이, 부부 의견일치는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문제 중심 대처방식($t=2.67, p < .01$)과 지지추구 대처방식($t=2.29, p < .05$),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

인 정서중심 대처방식($t=-3.22, p < .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통제된 조건에서는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지지추구 대처방식이,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부부의 견일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부 응집력은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문제 중심 대처방식($t=2.35, p < .01$)과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t=-2.92, p < .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통제된 조건에서는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부부응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만족은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t=-3.46, p < .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통제된 조건에서는 소극적 대

표 3. 결혼적응 하위변인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2
		B	Std.Error	Beta		
부부의견일치	문제중심	.30	.11	.18	2.69**	.09***
	지지추구	.22	.10	.14	2.29*	
	소망추구	-.07	.11	-.04	-.61	
	정서중심	-.35	.11	-.19	-3.22***	
부부응집력	문제중심	.32	.14	.16	2.35**	.07***
	지지추구	.22	.12	.12	1.90	
	소망추구	-.17	.13	-.08	-1.27	
	정서중심	-.39	.13	-.17	-2.92**	
부부관계만족	문제중심	.16	.09	.12	1.76	.06**
	지지추구	.10	.08	.08	1.23	
	소망추구	.02	.09	.02	.28	
	정서중심	-.30	.09	-.20	-3.46***	
부부에정표현	문제중심	.05	.09	.03	.49	.04*
	지지추구	.18	.08	.14	2.24*	
	소망추구	-.21	.09	-.02	-.22	
	정서중심	-.22	.09	-.14	-2.37*	

* p < .05, ** p < .01, ***p < .001

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부부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부에정표현은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지지추구 대처방식($t=2.24, p<.05$)과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t=-2.37, p<.05$)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통제된 조건에서는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지지추구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부부에정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희망과 결혼적응과의 관계

결혼적응 하위변인에 대한 희망 하위변인인 경로사고, 주도사고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의 결과에서 보듯이, 결혼적응의 하위변인인 부부의견일치($t=3.92, p<.001$), 부부응집력($t=4.88, p<.001$), 부부관계만족($t=2.97, p<.01$), 부부에정표현($t=4.21, p<.001$) 모두 희망

표 4. 결혼적응 하위변인에 대한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R ²
		B	Std.Error	Beta		
부부의견일치	경로사고	.01	.06	.01	.09	.10***
	주도사고	.24	.06	.31	3.92***	
부부응집력	경로사고	.03	.07	.03	.35	.16***
	주도사고	.34	.07	.37	4.88***	
부부관계만족	경로사고	.04	.05	.07	.89	.09***
	주도사고	.14	.05	.24	2.97**	
부부에정표현	경로사고	-.08	.05	-.13	-.62	.07***
	주도사고	.21	.05	.34	4.21***	

* p < .05, ** p < .01, ***p < .001

의 하위변인인 주도사고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각각의 영향력이 통제된 조건에서는 주도사고가 결혼적응에 주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과 결혼적응과의 관계

전체 결혼적응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적응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변인들은 분리개별화, 희망의 순서로 나타났고 결혼적응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26%였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결혼적응에 대해 분리개별화는 20%, 희망은 6%를 설명하였다. 즉, 다른 변인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분리개별화, 희망이 결혼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

표 5. 결혼적응에 대한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분리개별화, 희망의 중다회귀 분석

결혼 적응			
변인	표준화된 B값(Beta)	t	R ²
분리개별화	-.39	-8.16***	.196
희망	.25	5.17***	.059
총 설명량			.255

* p < .05, ** p < .001

다. 물론, 표 2를 통해 적극적 대처방식과 결혼적응 간의 상관을 볼 수 있었지만($r=.21, p < .001$), 분리개별화, 희망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이 결혼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분리개별화와 희망을 매개로 하여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결혼적응과 관련성을 보이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고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함으로써 결혼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로 첫째,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적응 하위변인들을 살펴볼 때, 부부의견일치, 부부응집력에 있어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애정표현에 있어서는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지지추구와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지 자원들이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대처방식이 결혼생활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Pearlin 등, 1978)는 선행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병 환자들이 일반주부에 비하여 적극적 망각, 양보, 체념, 정서적 진정 및 정서적 지원 추구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전경구, 1998)나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망적 사고, 조력의 추구, 정서적

지지추구 등의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Coyne, Aldwin, Lazarus, 1981)에서와 같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 대처방식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이 다양한 부부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문제 중심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지지자원을 받아들이며, 소극적 대처방식의 하위변인인 정서중심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분리개별화와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리개별화가 잘 될수록 부부간 의견일치도가 높고 부부응집력이 커지며 부부관계를 만족하고 부부애정 표현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개별화가 어려운 집단일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에서의 불만족, 원가족 문제인식, 전반적인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녀양육 갈등을 높이 지각한다는 결과나(윤희정, 2004), 남편의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결혼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내의 부모로부터의 개별화와 남편의 결혼만족도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Wendy Amstutz Haws, Brent Mallinckrodt, 1998)와도 맥을 같이한다.

“2003년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상담통계 개요”(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2004)에 따르면,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등의 주된 이혼사유 외에도 남편의 mama-boy적 기질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며 상담을 호소한 비율도 그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예는 비단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기혼 남성의 예에 불과하지만,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 또한 분리

개별화는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다. 개별화가 평생의 과정이라는 이론(Colarusso, 1997)에 근거한다면, 비록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장과정을 바로 인식하고 보다 건강한 개별화를 이룸으로써 결혼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희망과 결혼적응과의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희망의 인지적 하위변인 중 주도사고가 결혼적응의 하위변인인 부부의견 일치, 부부응집력, 부부관계만족, 부부애정표현 모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달성을 위해 단지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사고의 특성 즉,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크게 가지는 것이 결혼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생활에 있어서 내적인 자신감과 에너지와 관련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넷째, 결혼적응에 대한 대처방식, 분리개별화, 희망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결혼적응은 분리개별화, 희망의 순으로 예언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앞선 결과를 통해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 또한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경우에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은 결혼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 그 자체로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상관이 높은 다른 변인들, 즉, 분리개별화와 희망을 통하여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부부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여 볼 때, 문제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방식인 대처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처방식과 같은 행동상의 변화를 피하기 이전에 여성 자신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분리개별화가 잘 되었으며, 그것이 지금의 부부문제 및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자신의 내적인 통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감 등과 관련된 주도적인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과 결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로 부부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적될 수 있는 한계점을 고찰하여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적응’을 측정하여 이를 결혼적응의 정도로 설명하였다. 결혼적응에는 다양한 측면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 ‘부부적응’의 내용만을 측정함으로써 결혼생활에 포함되는 다양한 측면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결혼적응을 설명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상정하여 결혼적응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에서 60대까지로 연령별 분포가 넓게 나타나 연령별로 이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폭넓은 연령대를 한데 묶어서 ‘기혼여성’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물론, 학력, 수입정도 등 다양한 인구학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결혼적응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결혼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부부적응 척도는 본 연구에서 부부간 아내와 남편 각각이 아닌 아내 자신의 적응정도만을 측정하였다. 이에 부부적응에 있어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내용상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영 (2002).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숙 (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Vol. 8, No. 1, 171-183.
- 김미정 (2001).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달숙 (1992). 희망의 간호학적 이론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 박정운, 최유경 (2003). 기혼남녀의 스트레스 지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생활과학 논집, Vol. 18, 49-63.
-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Vol. 4, No. 1.
- 김인경 (2000).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가족관계,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경, 장근영 (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1), 143-156.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우 (1996). 환병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신심 스트레스 학회지, 4(2): 23-32.
- 권정혜 ·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의 타당화 연구 II: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2), 139-150.
- 권정혜 · 채규만 (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 민성길 (1989). 환병의 개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4): 604-616.
- 박경순 (1998). 결혼갈등과 우울감에 대한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부형 (2000).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분리-개별화 수준 및 대상관계 특징.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호란, 박선남 (2000). 암 환자 어머니의 희망 분석. 대한간호아동학회지.
- 송소원 (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학생지도연구).

- 이민식, 김중술 (1995). 부부관계 적응 척도 (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 '95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291-299.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희정 (2004). 기혼여성의 가족분화 및 분리개별화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김중우, 박훈기 (1998). 환병 환자와 일반 주부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대한심신스트레스 학회지, 6(1): 9-23.
- 전길량 (1988). 자기개발과 부부적응에 관한 상관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석희 (1992).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이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지혜정 (2002).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태영숙 (1994). 한국 암 환자의 희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차승희 (1991). 가족스트레스와 부부간 대처방안 및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88).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동욱 (2005). 희망에서 주도요인과 경로요인의 기능: 성취가능성과 우울/불안 관련 정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유경 (2002). 결혼 초기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 와 대처방안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향 (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훈 (2000). 자의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Jay R. Greenberg & Stephen A. Mitchell저, 이재훈 역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한국 심리치료 연구소.
- Sheldon Cashdan 저, 이영희 고향자, 김해란, 김수형 공역 (2005). 대상관계 치료. 학지사. 2003년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상담통계 개요 (2004).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 Adams, B. N. (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rd ed). Chicago: Rand McNally Publishing Co.
- Affleck, G., & Tennen, H. (1996). Constru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tational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64, 899-922.
- Bar-tur, Liora & levy-Shiff Rachel (2000). Coping with losses and past trauma in old age'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 and interpersonal Loss*, Vol. 5, pp 263-281.
- Benard, J. (1933). An instrument for measurement of success in marriage. *Publication of American Sociological Society*, 27, 94-106.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reznitz, S. (1986). "The Effect of Hope on Coping with Stress" in dynamic of stres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Ed. M. H. Appley and R. Trumbull, New York Plenum, 1986,

- 295-306.
- Burgess, E. W., & Cottrell, L. S. (1939).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New York: Prentice-Hall.
- Burgess, E. W., & Wallin, P. (1953). Engagement and marriage. Lippinott(Chicago).
- Coyne, Aldwin, & Lazarus, R. S. (1981). Depression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439-447.
- Folkman, S. K.,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457-459.
- Frank, J. D. (1975). The faith that heals. *John Hopkins Medical Journal*, 137, 127-131.
- Green, R. A., & Millon, F. J. (1986). Instigation to aggression as a function of self-disclosure and threat to self-estee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440-443.
- Haws, Wendy Amstutz1, Mallinckrodt, & Brent (1998). Separation-Individuation from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djustment of recently married coup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26, Issue 4, p. 293.
- Herth, K.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hope and level of coping response and other variables in patients with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16, 67-72.
- Katz, J. L., Weiner, H., & Gallagher, TF. (1970). "Stress, distress and ego defenses". *Arch Gen Psychiat*, 29(1970), 131-142.
- Kobasa, S. O. (1984). How much stress can you survive?. *American Health*, 3, 64-77.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 Hill.
- Lazarus, R. S., & Folkman,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Lawson,(1994). Identifying pretreatment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244-248.
- Lynch, W. F. (1965). Image of hope. Baltimore: Helicon Press.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ile.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 Mahler, M. S. (1968). On human symbiosis and the vicissitudes of individuatio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cgee, R. F. (1984). Hope: a factor influencing crisis resolutio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6(4), 34-44.
- McGrath, JE. (1970).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stres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Menaghan, E. G. (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71-385.
- Obayuwana, A. O., & Carter, A. L. (1982). Original communication: the anatomy of hope. *Journal of national association*, 74(3), 229-234.
- O'wen, D. (1989). Nurses's perspectives on the meaning of hope in patients with cancer. A

- Qualitative Study Oncology Nursing Forum*, 16(1), 75-79.
- Pearlin, L. I., & Schooler, C.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21.
- Parker & Ashe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s, K. R. (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nmental factor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77-1292.
- Pearlin, L. I., & Schooler, C.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oy, A. (1987). Five risk factors for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0, 536-541.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Snyder, C. R., Lapointe, A. B., Crowson, J. J., & Early, S. (1998). Preferences of high-hope 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and Emotion*, 12, 807-823.
- Snyder, C. R. (1999). Hope goal blocking thoughts and test-related anxieties. *Psychological Reports*, 84, 206-208.
- Snyder, C. R. (2000). The past possible future of hop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11-28.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 R., Ilardi, S. S., & Cheavens, J. (2000). The role of hope in cognitive behavior therapi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47-762.
- Snyder, C. R., Ilardi, S. S., Michael, S., & Cheavens, J. (2000). Hope theory: Updating a common process for psychological change. In C. R. Snyder & R. E. Ingram (Eds.), *Handbook of Psychological change: Psychotherapy Pross & Practices for the 21st century* (pp. 128-153). New York: Wiley.
- Snyder, C. R., Michael, S., & Cheavens, J. (1999). Hope as a psychotherapeutic foundation of nonspecific factors, placebos, and expectancies. In M. A. Hubble, B. Duncan, & S. Miller(Eds.), *Heart and soul of change* (pp. 179-20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nyder, C. R. (2002). Hope therap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 Snyder, C. R., Cheavens, J., & Michael, S. T. (1999). Hoping in C. R. Snyder(Ed),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pp.205-2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 Pulvers, K. (2001). Dr. Seuss, the coping machine, and "Oh, the places you will go." In C. R. Snyder(Ed.), *Coping with stress: Effective people and process* (pp. 3-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 Taylor, J. D. (2000). The roles of hopeful thinking in preventing problem and enhancing strength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5, 262-295.
- Snyder, C. R., Simpson, S. C., Michael, S. T., & Cheavens, J. (2000). The optimism and hope constructs: Variants on a positive expectancy theme. In E. C. Chung (Ed), *Optimism and pessimism*.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panier, G. B., & Filsinger, E. E. (1983). The dyadic adjustment scale. In E. E. Filsinger (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 Sage Pub. Inc.
- Suls, J., & Fletcher, B. (1985). The relative efficacy of avoidant and nonavoidant coping strategies: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4, 249-288.
- Tennen, H., & Affleck, G (1999). Finding benefits in adversity. In C. R. Snyder(Ed.),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 (pp. 279-30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ndy Amstutz Haws, & Brent Mallinckrodt (1998). Separation-individuation from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djustment of recently married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Therapy*, 26:293-306.
- 1 차원고접수 : 2006. 11. 12.
심사통과접수 : 2006. 12. 14.
최종원고접수 : 2006. 12. 20.

Coping style, Separation-Individuation and Hope on Marital Adjustment in Married Women

Myung-Ok Lee

Jung-Hee H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ung-Buk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ping style, separation-individuation and hope on married woman's marital adjustment. There were 337 married woman who had lived in Korea in this study. The significant results were revealed as follows. : First, when effects of other sub-dimensions of coping style were controlled, the more positive coping style of 'problem-focused coping style', the less passive coping style of 'emotion-focused coping style', the better marriage adjustment was: Second, women who showed high separation-individuation level from their parents tend to have better marital adjustment. Third, women who had high hope level tend to have also better marital adjustment, especially agency thinking, sub-dimensions of hope, had great impact on marital adjustment. Forth, When effects of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we could be convinced tha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hope had great impact on marital adjustment. When such results wer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suggested.

Key words : marital adjustment, coping style, separation-individuation, hope.